

FTA 100% 활용하기

한국-이스라엘 FTA와 기술 무역

최태훈 |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



최태훈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

한국-이스라엘 FTA와 기술 무역



1. 한국-이스라엘 FTA 현황

2019년 8월 21일, 드디어,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협상 종료 선언되었다. 양국간의 길었던 세부사항 협상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하는 순간이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27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2018년 한국의 전체 통상 무역 규모는 1.1조 달러를 넘어, 이스라엘과의 교역은 약 0.23%로서 전체국가 중 45위에 해당하며, 약 890만의 이스라엘 인구를 고려

【한-이스라엘 FTA 협상 종료 선언, 2019년 8월 21일】



했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 교역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 이스라엘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5
상품수출	1,818	1,532	1,464	1,225	1,180	1,275	1,268	1,448	591
상품수입	683	861	856	960	870	865	1,167	1,271	396
총교역량	2,501	2,393	2,320	2,185	2,050	2,140	2,435	2,719	987
무역수지	1135	671	608	265	310	410	101	177	195

출처 : 무역협회

한국의 對 이스라엘 수출 품목으로서는 자동차가 약 7.3억 달러로 전체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4.4%와 13.3%의 비중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 이스라엘 수입 품목으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응용 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등 장비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對 이스라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불, %, MTI 3단위 기준)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자동차	726	50.1%	반도체제조용장비	323	25.4%
2	합성수지	104	7.1%	전자응용기기	165	13.0%
3	영상기기	68	4.7%	계측제어분석기	104	8.2%
4	자동차부품	35	2.4%	무선통신기기	77	6.1%
5	건설광산기계	31	2.2%	반도체	66	5.2%
6	원동기및펌프	27	1.9%	항공기및부품	63	5.0%
7	기타석유화학제품	27	1.9%	동제품	60	4.7%
8	반도체	26	1.9%	공구	27	2.1%
9	무선통신기기	22	1.5%	비누치약및화장품	27	2.1%
10	플라스틱제품	21	1.4%	알루미늄	26	2.0%
	10대품목 합	1,087	75%	10대품목 합	938	73.8%
	전체	1,448		전체	1,271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별 이스라엘의 자동차 판매량 순위】

제조사	2018년		2017년	
	판매량(대)	비중	판매량(대)	비중
현대	38,423	14.4%	36,781	13.1%
기아	35,524	13.3%	35,663	12.7%
토요타	27,192	10.2%	31,103	11.0%
스코다	19,928	7.4%	21,742	7.7%
닛산	15,626	5.8%	14,342	5.1%

출처: Israel Motor Vehicles Importers Association (IMV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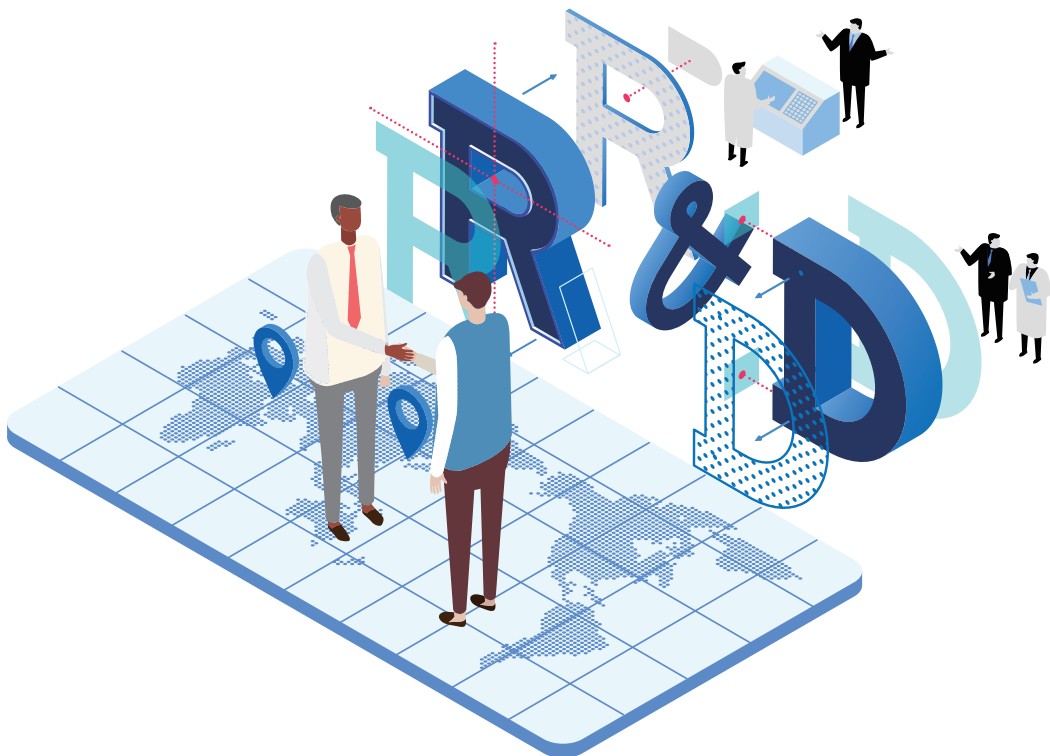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하여,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액 중 자동차(관세율 7%),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의 주력 수출품목을 포함한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므로, 관련 부분의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 비중 25.4%로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는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도 3년 이내 철폐될 예정이므로, 국내 주력 산업의 부품·장비 분야에서 특정국가들에 대한 수입의존도 편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협상종료 선언식의 부대행사로서,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인 예다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동기술협력 MOU 체결 서명식이 있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양국의 주요관심사는, 양국간

통상교역의 증대 뿐만 아니라 양국간 기술협력, 기술이전, 혁신기술에 관한 상호 투자 촉진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양국은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네가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한·이스라엘 투자 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양국의 FTA는 상호 투자의 확대와 함께, 양국 기업간 기술 및 비즈니스 협력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한국과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양국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많은 금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백만달러)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	7,415	12,699	14,479
이스라엘	11,988	18,169	2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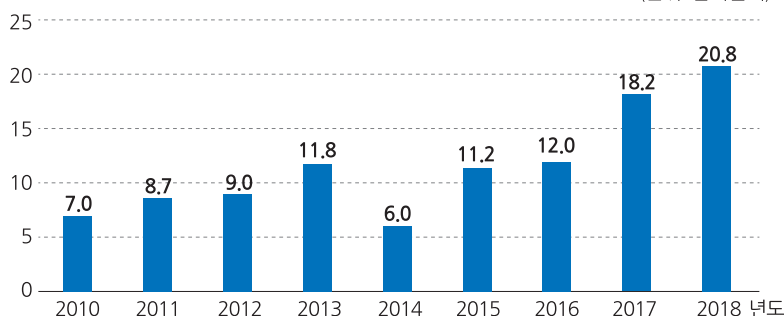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GDP는 각각 17,208억 달러, 3,697억 달러이므로,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2018년에 한국은 0.84%, 이스라엘은 5.62%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액 중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된 비중은 25%를 상회한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약 35억 달러에서 약 75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투자액은 약 24억 달러에서 약 54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중 상당부분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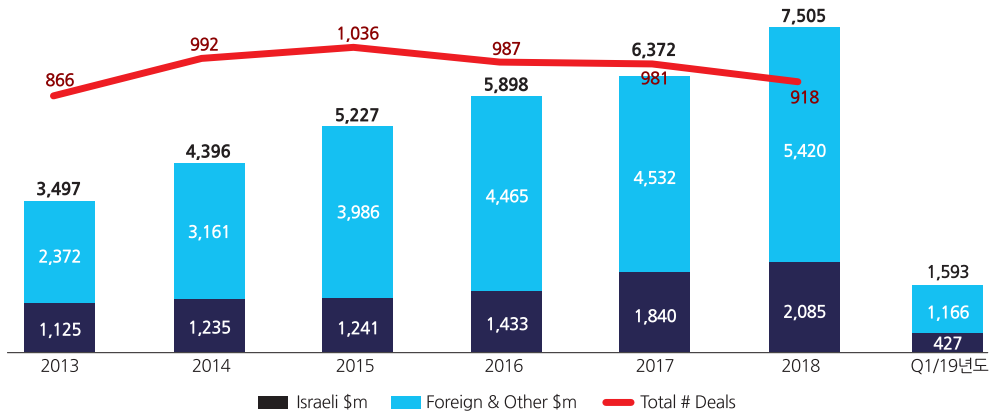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출처 : 국가통계포털, CITI은행 이스라엘지사

【2013~2018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투자추이】

(단위: 백만달러)



출처 : IVC Research Center

또한, 양국의 해외투자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17년 약 510억 달러로 상승한 후 2018년에 다시 389억 달러로 조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2018년 약 61억 달러로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해외투자】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	30,508	51,044	38,917
이스라엘	14,579	6,153	6,117

출처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2010년부터 2018년 말 누계기준으로 양국의 상호 투자를 보면, 한국의 對이스라엘 투자는

약 5천 7백만불이며, 이스라엘의 對한국 투자는 약 1억 4천6백달러이다.

【연도별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

(단위: 신고금액 기준, 백만불)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한국 → 이스라엘	0.2	0.0	0.0	2.0	13.5	6.9	2.8	0.9	1.2	57.2
이스라엘 → 한국	0.1	1.9	28.3	14.0	1.1	0.6	6.5	45.7	9.6	14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3. 양국의 기술 무역 현황

한국과 이스라엘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에서 세계 1,2위를 다툰 정도로,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적 비중이 높다. 기술수출 금액(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 천만 명 이하의 국가 중 아일랜드(2위), 스위스(7위)와

함께 이스라엘은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무역규모로는 세계 11위, 기술수출 금액으로는 세계 13위(이상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술무역 세계 순위】

(기술수출액 순)

순위	국명	기술수출 (백만달러)	기술도입 (백만달러)	기술무역규모 (백만달러)	기술무역수지 (백만달러)	수지비	인구수 (백만명)
1	미국	130,834	88,891	219,725	41,943	1.47	329.1
2	아일랜드	73,337	98,091	171,428	-24,754	0.75	4.9
3	독일	71,836	53,734	125,571	18,102	1.34	83.5
11	이스라엘	15,372	3,512	18,884	11,859	4.38	51.7
13	한국	10,408	16,409	26,817	-6,001	0.63	8.5

기술무역액 출처 : 2017년도 기술무역통계 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구수 출처 : OECD stats, 2015년 기준

나스닥에 상장한 이스라엘 혁신기업은 2019년 5월 기준 98개로(출처: IVC Research Center) 이스라엘의 활발한 기술수출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8,300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활동중이며, 이들 중 Mobileye는

153억 달러에 Intel로 인수(2017년)되었으며, 2019년에 Mellanox는 69억 달러에 Nvidia로 인수되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투자회수의 90%이상은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혁신기업의 시가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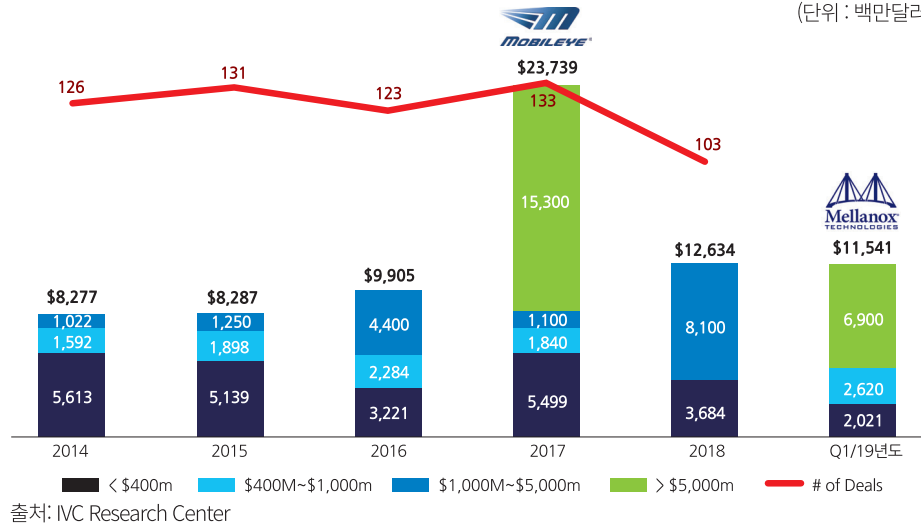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기업	Check Point	Amdocs	Mellanox	Nice	Wix.com	Novocure	Verint	Cyberark
시가총액 (십억달러)	18.1	7.7	6.9	6.84	5.31	4.64	3.31	3.17

출처 : IVC Research Center

【2014~2018 이스라엘의 Exit】

(단위 : 백만달러)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이스라엘 혁신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이스라엘은 1인당 투자금액이 809 달러로, 미국의 302 달러보다 2.6배 이상이다(출처: IVC Research Center). 또한, Apple, Google, 삼성 등 351개의 다국적 기업이 이스라엘에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기능은 이스라엘 혁신 스타트업의 조기 발굴, 공동 기술 개발, 초기 투자 및 M&A 등이다. 혁신 기술, 우수 인력, 적시 투자, 다국적 기업 연계 등이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주요 기술무역 대상국가를 보면 미국(96억 달러), 중국(29억 달러),

베트남(25억 달러) 순이다(출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아직 한국의 對이스라엘 기술 무역 및 기술투자는 매우 적지만, 최근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가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삼성과 LG는 이미 이스라엘에 연구소를 운영중이며, 2018년 현대자동차가 크래들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Alegro, AI, 에너지 분야의 H2 Pro, 무인기 분야의 Percepto 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하였다. 또한, 중견기업인 성우하이텍도 Adasky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자율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스라엘에 주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FTA를 발판으로 보다 많은 對이스라엘 기술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對이스라엘 기술 투자는 투자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4차산업기술을

접목할 기반이 될 수 있다. 양국간 기술 투자 및 기업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

4. 기술무역은 기술협력으로부터

한국기업들에게 해외 기술투자 및 기술 도입은 아직도 매우 모험적인 일이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절대적 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면, 물리적인 거리, 문화적 이질성, 시장 규모 협소 등의 이유로, 아직 한국기업인들이 즐겨 방문하는 국가가 아니다. 양국 기업간 교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투자나 기술 도입은 시기 상조일 수 있다. 따라서, 상호간 신뢰와 기술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술 무역 이전에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양국은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이하 한이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이재단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공동기술개발 과제의 평가·선정 및 지원, 둘째, 한국·이스라엘 기업간 매치메이킹,

셋째, 양국 산업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찰단 운영이나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 개최이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정부는 매년 같은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공동 R&D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국가별 연간 기금 규모는 2001년 100만 달러에서 2005년 150만 달러로, 2013년 200만 달러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이번 FTA를 통해 각국의 연간 기금 규모는 400만 달러로 증액될 예정이다.



한이재단은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기금을 활용하여, 한국이스라엘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제 규모 및 기간에 따라서 타당성 과제, 소형 과제, 대형

과제로 분류된다. 과제당 최대 지원한도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로서, 대형과제의 경우 과제당 1백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한국-이스라엘 국제 공동기술개발 사업 유형】

	타당성평가 과제	소형 과제	대형 과제
총개발비용	US \$60,000	US \$400,000	한도없음
지원한도 (양국지원금액 합계)	US \$30,000	US \$200,000	최대US \$1,000,000
지원기간	3개월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승인주체	사무총장	사무총장	이사회
과제성격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등 조사/기획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	사업화가 가능한 장기연구개발

200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한이재단에 신청된 총 과제수는 299 개이며, 이 중 174 개가 선정되어 지원되었다. 종료된 총 75 개의 공동기술개발과제 중에서 38개의 기업이 약 3,65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특히, 지원된 과제 중 한국카본과 IAI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정익 수직이착륙 무인기의 체공시간을 약 2배 증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출자하여 2018년 8월, 합작회사인 KAT를 설립, 운영중이다. 양국 기업간 기술협력이 기술투자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한 우수사례이다.

최근, 기술도입이 1 증가할 때, 기업의 부가가치는 0.18 증가한다는 분석이 보고되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지만,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번 한국 이스라엘간 FTA를 통하여, 양국이 상호 투자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투자,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술무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4차산업 시대의 국내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